

춤패 배김새 20주년 큰춤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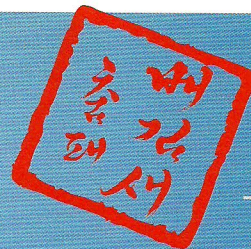
물

김



2005.9.23 Fri. 8:00pm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 춤패 배김새 • 후원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 공연문의 / 051.620.4964 017.547.4761



춤패 배김새

1985년 12월 한국 전통춤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현 시대를 대변하며 관객과 함께 삶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춤을 만들려는 목적과 실험정신을 가지고 최은희 교수(경성대학교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창단된 순수 민간예술 단체이다.

춤패 배김새의 주요 작품으로는 86년 창단공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민족의 아픔을 그린 “히로시마 오늘 1989” “그날 이후” “아리랑 진혼무” “백의”가 있으며, 사회 문제를 주제로 창작한 작품 “도시의 새” “이름 없는 별”이 있고, 최근의 작품으로 “광야” “흙으로” “물의사원” “나비, 바다를 날다” 등이 있다.

또한 “춤을 대중 가까이 가져간 의식있는 춤패” “시대 정신이 담긴 단체”란 평가를 받아왔다. 4명으로 창단하여 30여명에 이르는 현재까지 춤패 배김새는 국내 공연에 머무르지 않고 동·서 베를린 민속문화 축제, 일본 나가사키현 축제, 일본 도쿄의 아시아 민족 무용교류회, 일본 쓰시마 아리랑축제 7차례 초청공연 이외에도 소극장 공연의 활성화와 인접 예술분야의 접목을 통한 무용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하여 기획공연으로 새로운 예술장르의 접목을 시도하고 단원 개개인의 개성을 발굴하여 새로운 춤 언어 찾기에 힘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속에서 일반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작업을 계속하고자 한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춤패 배김새 20주년 큰축판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이 가을 만큼 풍성하고 여유로우며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춤패 배김새 창단 10주년, 15주년 공연을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20년이러니.....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두 번의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김새”, 땅속에 깊이 내려 박는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만큼 배김새만의 독특한 춤과 정신을 무용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의지로 시작하여 영남지역의 전통문화 강좌가 있는 곳곳을 찾아 공부하며 관객이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출판물 벌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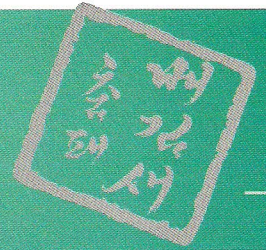
초창기 여러 가지로 열악했던 시절, 공연을 준비하면서 지하 무용실에서 서로 엉켜 땀 흘리며 땀냄새에 취해 새벽을 맞이하기 일쑤였고, 웬만한 소품은 직접 만들어 보면서 누구랄거 없이 단원들 모두 춤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냈던 시절, 정말 춤이 좋아 한여름의 태양 만큼이나 정열적으로 춤에 미쳐있던 때를 되돌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춤패 배김새 창단 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공연 첫번째로 2월에 단원들의 자아찾기의 장으로 참신한 실험성을 돋보이게 하는 “솔리스트전”을 마련하였고, 5월에 그동안 배김새 창작작업의 기본이 되고 원천이 되었던 영남지역의 민속춤과, 민족정서의 신명을 감지하고 느끼게 하는 전통춤을, 두번째 특별 기획공연 “옛춤판”으로 창단멤버에서 2005년 신단원까지 한무대에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춤패 배김새 창단 20주년을 마무리하는 무대로 “춤패 배김새 20주년 큰 춤판 -물 길-”로 21세기 최고 화두이고 한국인의 본원적인 물의 사상을 통해 인간의 삶을 재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춤패 배김새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실패와 조그마한 성공의 성과물도 더러 있었고, 부산의 동인 단체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20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춤에 대한 공부도 게을러지고 그 열정 또한 조금은 식어버린 것 같아 반성해 보며, 다시한번 채찍질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무용계에 더 깊이 뿌리 내려, 더 뜨겁고, 더 정열적인 춤으로 발전되어 가는 춤패 배김새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년의 춤패 배김새가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최은희 교수님께 고개숙여 깊이 감사 드리며, 배김새에 많은 충고, 질책, 성원 아끼지 않고 관심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 매 자

(사) 창무예술원 이사장

춤 패 배김새 창단 20년!

10년 전 춤패 배김새 창단 10주년 인사말을 적었을 때가 무색할 정도로 춤패 배김새가 어느덧 창단 20년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한국무용단체로 처음 단체를 결성한다고 하였을 때 영남지역의 창작활성화와 무용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겠구나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단체였습니다. 젊고 패기 있던 단원들이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중견무용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많은 활동으로 지면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배김새, 또한 많은 공연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최은희와 춤패 배김새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공연팜플렛을 접할 때마다, 민족의 정신과 영남 지역의 민속을 무용창작에 담으려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고 민족의 정서를 흡수하여 춤패 배김새만이 할 수 있는 색깔을 만들고 흔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20주년 기념공연을 계기로 하여 한층 성숙된 배김새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수행, 노력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변화하는 한국과 발전하는 예술의 시대를 반영하여 춤패 배김새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계속적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춤패 배김새의 2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하는 배김새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 태 원

출판평론, 「공연과리뷰」 편집인

오늘날 지역에서 하나의 춤 단체가 존재하면서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가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1980년대나 90년대 보다 극장 환경이나 제도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지역 춤단체는 그 때 만큼 빛을 덜 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순수 예술인 춤에 대한 관심이 덜해서 일까. 물론 그 때 보다 춤꾼들의 활동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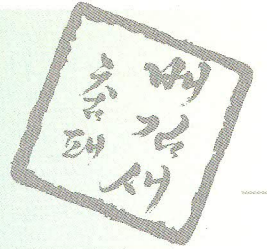
그런 가운데 춤패 배김새의 창단 20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다는 소식은 나로 하여금 춤에 대한 최근의 실망을 어느 정도 접게 만든다. 아니, 오히려 설레게 만들고 있다. 지난 창단 10주년을 기념해서 그 10주년 축하 글을 써주

고, 이후 15주년을 기념하는 화집을 받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주년이라니 -흐르는 시간은 때론 인간의 기억의 속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지난 10주년 때 나는 춤패 배김새의 단체적 특징을 '온고지신(溫故知新)적 무용관과 함께 강한 사회적 주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일종의 농현의 춤미학을 표출하는 춤집단'으로 파악했다. 같은 기념 축하 글에서 부산대의 채희완 교수는 다소 역설적인 표현으로 '서정적 회화성, 경쾌한 중압감' 그 이중적인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채 교수는 '부산성의 승화와 세계성의 확보'를 춤패 배김새에 주문하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보니 채 교수나 나나 춤패 배김새에 대해 모두 상당한 애정을 기울이면서, 그러나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들의 춤미학과 존재성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즉, 전통적(서정적)인 것 같은데 강한 주제성(중압감)을 드러내고, 또한 지역적인 것 같은데 언젠가 그 경계를 훨씬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닌 게 아니라 요 근래 내가 가까이 볼 수 있었던 배김새 신은주 안무의 「광야」나 김민경 안무의 「흙으로」, 하연화의 전통춤과 함께 공연된 「바다를 건너는 나비」, 그리고 배김새의 정신적 지도자인 최은희 교수의 「천둥소리」는 모두 우리춤의 상징성·서정성·현대성·서사성 그 각각의 면면을 매우 인상 깊게 보여주면서, 평균적인 한국창작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특히 「광야」와 「천둥소리」는 각기 이육사의 시와 김주영의 소설을 소재로 하면서 그 작품의 스케일에 있어서나 깊이에 있어서 근래 보기 드문 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연될 「물길」도 배김새 창작춤의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즉, 서정성과 강한 주제성을 함께 결합시켜 가면서도 결코 소박하지만은 않는 차원·지역성 뿐만 아니라 세계성도 함께 겨냥하는 -차원에서 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

거듭 춤패 배김새의 20주년을 축하한다.



최은희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부학장
춤 배김새 총감독
(사) 한국무용 연구회 부이사장
(사) 부산 무용협회 부지부장

춤 배김새 20주년 큰 춤판을 축하하며...

춤 배김새는 지역춤으로 지역의 땅을 확고히 다지라는 뜻에서 부산-경남 일대의 고유한 춤사위 명칭인 '배김새'를 빌어 춤패 《배김새》가 태동한지 올해가 꼭 20년째가 된다. 1985년 7월에 창단하여 1986년 12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연으로 첫발을 내 디딘 뒤, 시대에 부합한 창작작업을 통해 현실과 삶에 유리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대를 마련해 왔다.

춤은 기록이나 다른 매체로 전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이며 무용수의 신체를 빌어야만 태어나는 예술이므로 그 어떤 예술보다도 신체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전' 예술인 것이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가 합일할 수 있는 진정한 춤꾼이 필요하다.

20여 년 동안에 배출된 배김새의 춤꾼으로는 정미숙, 윤보경, 김희선, 하연화, 신은주, 손미란, 강선미리, 홍이경, 김종덕, 박미영, 한수정, 이지영, 이화성, 김민경, 황정옥, 정경희 등 40여 명에 이른다. 배김새 초창기에 단원들에게 제시하였던 방향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특성을 살리면서 더불어 "우리"라는 공동의 책임의식과 삶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현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오늘의 춤으로 다각적으로 표현 활동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째,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디어에 의존하기 이전에 충실한 춤의 전수자가 될 것과 둘째로, 현대인으로서 비판의식과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으로 오늘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공감이 가는 작품을 형상화시킬 것. 셋째로, 무용은 종합예술인 만큼 인접분야와의 끊임없는 교류로서 다각적이고 개방되어진 실험의식 속에서 작업을 하는 바람과 함께 무업(舞業)즉, 춤에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동인 무용정신', '동인집단'으로서 항상 인간적인 교류와 자유로움 속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초창기부터 10년동안 탄생되어진 작품으로는 히로시마 원폭과 낙태, 정신대의 아픔 등 시대적 아픔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하여 왔던 그 이후로는 환경, 생명, 성숙기에 접어들 단원들 각자 개성을 살린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개성이 각자 펼쳐지면서 배김새가 지향하는 춤 세계도 점차 넓어져 춤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 것이다.

춤패《배김새》가 창단 공연 당시 춤 전용 소극장이 없는 안타까움 속에 용두산 공원 언덕 옆 가마골 소극장을 시작으로 도레미 소극장, 파랑새 소극장, 세이 소극장, 장우 소극장 등 서면, 남천동, 광안리를 전전 순례를 하며 '만남' 시리즈를 기획한 소극장에서 실험공연과 지역 춤꾼으로서 부산여름무용축제의 시작과 더불어 광안리 해변가에서의 해변 무용제, 민속관 놀이마당에서 '열림춤 한마당', '새해 신맛이 굿', '신년해맞이', '정월 대보름' 등 각종 지역 예술문화행사에 꾸준히 촉매가 되어왔다.

돌이켜보면 지역 춤을 먼저 익혀야겠다는 일념에 어디든지 따라나섰던 《배김새》가 기억에 남을 일로써는 창단 후 서울공연을 위해 2m나 되는 소품을 들고 서울 시내를 헤매었던 일, 해운대 해변 상생극장에서 「아리랑 진혼무」를 출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버린 그 날 비를 흠뻑 맞아가며 공연에 임하는 배김새들의 뜨거운 열정에 아름답고 순수성을 지금도 간직한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음을 본다.

강산도 두 번 바뀐 성인식을 치르는 《배김새》가 2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한 공연은 대형적인 과시성 행사보다는 초창기 때부터 끊임없이 단원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 끊임없이 작업해 온 정신을 강조하여 2005년 2월 13일에 특별기획공연으로 마련된 춤패 배김새 솔리스트 전에는 「춤추는 아리랑」의 한수정, 「가(枷),가(歌),가(假)」의 홍이경, 「호박밭」의 이화성이 참가하여 각각의 독창성과 실험성의 세계로 자신만이 갖을 수 있는 생각과 표현으로 각자의 호흡으로 첫 20주년 무대의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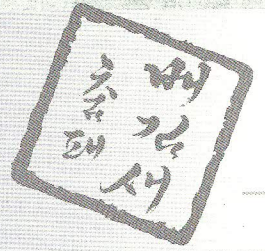
이어서 5월 7일에 영남지역에서 같고 닮은 춤꾼으로써 개인들의 장기춤을 강조한 옛 춤판이 펼쳐졌다. 그 중 춤패 배김새의 가장 고유 래퍼토리가 된 「배김허튼춤」은 가장 문화상품으로서 각광을 받고있는 작품이다. 「배김허튼춤」은 지역성이 살아있는 향토성이 강한 경남일대의 춤들을 바탕으로 그 춤의 구조원리와 형식을 생생한 오늘의 춤 모형의 한 방법론으로 제시하여 1998년 초연 되어져 이후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면서 춤 형식의 다양성과 즉흥성을 살려 일회성 몸짓이 아닌 하나의 춤 모형으로 거듭 공연되어지고 있다. 9월 23일 20주년 큰 춤판에는 생명을 주제로 한 「흰 그늘」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2명의 안무자 신은주, 김민경에 의해서 창작품「물 길」이 올려진다.

20주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춤꾼으로 거듭 태어남은 물론 단원 하나하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함께 항상 준비되어 있는 배김새의 열기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신념아래 부산무용예술 발전에 조그만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 품 의 도

생명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과정과 흡사하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의 길을 되새기는 사고의 흐름은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처절함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신(동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지 못한 채 타자(서양)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하기보다는 시각Vision 즉, 눈을 통해 사물을 본다는 것은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과 흡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성적 논리에 따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쳐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보는 것만으로 끝나 버리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정서로, '마음의 눈'으로 생명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생명사상의 하나인 물에 대한 상상의 힘을 촉각의 이미지를 통해 풀어감으로써 잔잔함 속에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그 에너지를 삶의 과정과 나누고자 한다.



작 품 내 용

삶은 처절하다.
유유히 흐르는 물결을 따라가기에는
그 처절함이 더욱 푸르르게 빛나 뒤돌아서게
된다.
물결이 만나 만들어진
끝없이 차오르는 그 바다는
나 이다.

잠기다

첫 만남, 촉촉한 물결에 나를 맡긴다.
고요하고, 깨끗하기만 한
물방울에 물결에 나를 묻고
나를 흘려보낸다.
...숨이 멎는다. 편안함에 잠을 청한다.
꿈을 꾀다.

스며들다

스산한 차가움이 내 몸속에 스며든다.
그리고, 처절히 녹아든다.
젖어 물이 된 몸...

차오르다

충만한 바다
쉽 없는 물결의 움직임에 숨이 차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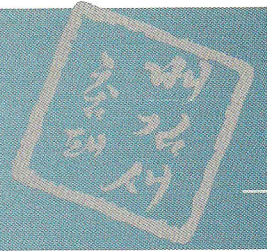
검은 바위를 틀어 박는 파도
벽이란 벽은
모두 젖어
모래가 되어 잠기는 몸

열리다

안과 밖이 존재하는가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가!
이미 물이 되어버린
나의 몸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몸을 움츠린다.
충만한 바다...

또 다른 물의 길이 열린다.





신은주

- 출판 배경사 상임인무자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 중요 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
- 경성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 창무회 (구) 소련 4개도시 순회공연 참가 • 동서 베를린 민속문화축제 참가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참가
- 제 6회 KBS 부산무용콩쿠르 대상 수상 - '낙수'
- 제 4회 부산무용제, 전국무용제 인무 - '백의 대상 및 장려상 수상'
- 제 1회 PAF 우수 안무가상 수상 - '木'
- 제 9회 무용예술가상 무용연기상 수상 - '가시'
- 2002 한일 월드컵 부산 올산 문화행사 조인무
- 2002 아시아인 게임 선수촌 개·폐회식 조인무
- 일본 동경 아시아 민족문화 교류회 참가
- 제 2회 말레이시아 말릭 공연 참가 • APEC 문화행사 뮤지컬 "가락국기" 인무
- 주요안무작 / 화향, 백의, 가시, 서리, 木, 꽃의조상, 광야, 밀집, 숲대- 오름에 대한 단상 외 다수



하연화

- 출판 배경사 대표 •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 경남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전수자
- 제 13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은상 수상
- 제 6회 전국 체육대회 성화봉송 보존시 조인무
- 제 2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 조인무
- 2002 한일 월드컵 올산 개막식 조인무
- 출판 배경사 정기공연 인무, 출연 (4회, 13회, 14회)
- '02 부산 젊은 숲꾼의 창작전 인무, 출연 • '내일을 여는 춤' 인무, 출연
- 제 13회 부산무용제 인무, 출연 • 6개광역시 연합 무용교류전 인무, 출연
- 화향의 송 2회 • 동서 베를린 민속문화 축제 참가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7회 참가 • 일본 동경 아시아 민족무용 교류회 참가
- 한국무용제전 서울무용제, 민족축제전, 부산무용제,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국제 해변무용제, 배경사 정기공연, 배경사 우수레퍼토리 외 다수 공연 참가
- 주요 안무작 / 날고 싶은 새, 가을뜨락에 서서, 빛이 될 때 까지 I, II, 여름맞이, 푸른 시나위, 줄, 바다를 건너는 나비, 나비, 바다를 날다 외 다수



김민경

- 출판 배경사 단원
- 덕영여자중학교, 덕영여자고등학교, 감천중학교 특기적성 강사
- 제 14회 KBS 부산 무용 콩쿠르 전통부분 입상
- 출판 배경사 정기공연 인무
- 국산 도깨비 한일 교류전 인무
- 동인 출판사 참가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3회 참가
- APEC 문화행사 뮤지컬 "가락국기" 조인무
- 주요안무작 / 웃, 콘크리트 숲 그늘, 흙에서..



김은희

- 출판 배경사 단원
- 전 울산시립무용단 단원
- 제 18회 부산무용콩쿠르 창작부분 은상
- 대구무용제 창작부분 금상
- 2001 출판 배경사 워크샵 공연 인무 및 출연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4회 참가
- 부산무용제, 전국무용제,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민속축제전, 한국무용제전, 제1회 국제해변 무용제, 정신대를 위한 해원 상생극 등 다수공연 참가



조은정

- 출판 배경사 조단원
- 제 21회 부산 무용콩쿠르 창작부분 동상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참가
- 부산무용제,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민속축제전, 한국무용제전, 국제해변무용제 등 다수공연 참가



김경아

- 출판 배경사 단원
- 제 22회 KBS부산 무용콩쿠르 한국창작부분 금상
- 제 11회 신인출제전 절고 푸른 숲꾼 한마당 인무, 출연
- 4-19 혁명 추모제 위문 춤 공연 참가
- 8-15 광복 60주년 '평화콘서트' 춤 공연 참가
- 일본 동경 아시아 민족무용교류회 참가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3회 참가
- 부산무용제, 한국무용제전,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6개광역시 연합무용교류전 등 다수공연 참가
- 버스에 예술단 단원



이주현

- 춤패 배김새 단원
- 무정초등학교, 반석초등학교 특기적성 강사
- 제 22회 부산무용콩쿠르 창작부분 동상
- 제 11회 신인 춤 제전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안무, 출연
- 일본 동경 아시아 민족무용교류회 참가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3회 참가
- 부산무용제, 한국무용제전,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6개 광역시 연합무용교류전 등 다수공연 참가



이현정

- 춤패 배김새 단원
- 제 21회 부산무용콩쿠르 창작부분 동상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참가
- 부산무용제,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민속춤제전, 한국무용제전, 국제해변무용제 등 다수공연 참가



성하진

- 춤패 배김새 단원
- S.M.C 무용강사
- 일본 동경 아시아 민족무용 교류회 참가
- 일본 쓰시마 아리랑 축제 3회 참가
- 제 14회 아시안 게임 개막식 참가
- 부산무용제, 한국무용제전,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6개광역시 연합 무용교류전 등 다수공연 참가



장영진

- 춤패 배김새 중단원
- 경성대학교 재학중



소리 || 특별출연 유금선

- 지방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 보유자

연출 || 최은희
 안무 || 신은주, 김민경
 글 || 황정옥
 무대미술 || 신무경
 조명 || 장훈석
 사진 || 김흥희, 박창현
 의상 || 비단길
 진행 || 손미란
 영상 || 김성연
 비디오 || 이호근
 금정문화회관 진행 || 강양일, 문재욱, 서성교
 출연 || 신은주, 하연화, 김민경, 김윤희, 조은정, 김경아, 이주현, 이현정, 성하진, 장영진